피겨소녀 신지아 세계주니어선수권 은메달

14살 피겨 여자 싱글 유망주 김연아 이후 16년만에 메달 206.01점 … 1위와 0.54점 차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 신지아(14·영동중)가 2006년 김연아 이후 16년 만에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거머쥐었다.

신지아는 18일 에스토니아 탈린 톤디라바 아이스홀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클린 연기에 성공하며 기술점수(TES) 74.52점, 예술점수(PCS) 62.11점, 총점 136.63점을 받았다.

그는 전날 얻은 쇼트프로그램 점수와 합쳐 개인 최고점인 최종 총점 206.01점으로 미국의 이사보 레비토(15·206.55점)에 이어 2위를 차지,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와 레비토의 점수 차는 단 0.54점 차이에 불과해 아쉬움도 남았다.

한국 선수가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피겨퀸' 김연아(2005년 은메달, 2006년 금메달) 이후 처음이자 16년 만이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싱글에서 5위를 차지한 차준환(고려대), 여자 싱글 6위 유영(수리고)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선 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는 국제 주니어 피겨대회 중 가장 권위 있는 대회로 개최 시점 기준 전년도 7월 1일 이전까지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회엔 피겨 강국 러시아 선수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징계로 출전하지 못해 경쟁이 예년보다 덜 치열했다.

24명의 프리스케이팅 출전 선수 중 23번째로 연기에 나선 신지아는 완벽한 연기를 뽐냈다.

그는 첫 번째 점프 요소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클린 처리해 기본 점수 10.10점과 수행점수(GOE) 1.85점을 챙겼다. 이후 트리플 루프, 트리플 살코, 더블 악셀 등 단독 점프 3개를 연달아 완벽하게 뛰었다.

연기 전반부의 마지막 연기 요소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은 최고 레벨인 4를 받았다.

10%의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에도 지친 기색이 없었다.

그는 더블 악셀-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와 트리플 플립-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트리플 러츠를 가볍게 뛰며 완벽한 연기를 이어갔다.

스텝 시퀀스는 레벨 3를 받아 아쉬웠지만, 플라잉 카멜 스핀과 플라잉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은 나란히 레벨4로 처리했다.

신지아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김)연아 언니 이후로 16년 만에 메달을 딴 것 자체가 정말 기쁘다"며 "만족할만한 경기를 치렀다. 생각지도 못한 은메달을 따서 놀랍기도 했고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달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함께 출전한 윤아선(15·광동중)은 프리스케이팅 129.59점, 최종 총점 195.87점으로 4위 자리에 올랐고, 위서영(17·수리고)은 프리스케이팅 120.63점, 최종 총점 186.72점으로 5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유망주 신지아(14·영동중)가 18일(한국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톤디라바 아이스홀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건 '피겨퀸' 김연아(2005년 은메달, 2006년 금메달) 이후 처음이자 16년 만이다. /연합뉴스

두산과 홈·키움과 원정 경기 … KIA, 실력 점검

타이거즈 전망대

수비 실책·마운드 제구 관건 선발 투수진 안정화 속 김선빈·최형우 타격 상승세 김도영·김석환도 부담 덜어

■KBO중간순위 (18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SSG	14	13	0	1	0.0
2	LG	14	10	0	4	3.0
3	키움	14	9	0	5	4.0
4	두산	13	8	0	5	4.5
5	롯데	13	7	0	6	5.5
6	KIA	13	6	0	7	6.5
7	삼성	14	6	0	8	7.0
8	KT	13	3	0	10	9.5
9	NC	14	3	0	11	10.0
9	한화	14	3	0	11	10.0

김도영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호랑이 군단'이 진짜 실력을 점검한다.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낸 KIA가 두산, 키움을 상대로 승수 쌓기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상대전적인 가장 좋지 않은 '천적' 두산과 주중 안방에서 만나는 KIA는 가장 뜨거운 한 주(5승1패)를 보냈던 키움의 안방으로 가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KIA는 롯데와 NC를 상대한 지난주 3승 2패를 기록했다. 행운의 노게임이 기록되는 등 승률 높이기에는 성공했지만 들쑥날쑥한 경기력은 여전했다.

14일 롯데전에서 타선 집중력 부재 속 1점 차 패배를 당한 KIA는 15일 NC와의 첫 만남에서 13이닝 연속 무득점의 답답한 행보를 하며 0-5, 시즌 3번째 영봉패를 당했다.

하지만 16일에는 1회부터 타자일순하며 장단 19안타로 선발 전원 안타·득점을 동시에 기록했다.

극과 극의 타격 속 수비 고민도 여전했다.

한 주의 시작과 끝에 실책이 있었다. 12일 롯데전에는 KIA 유격수 박찬호와 롯데 유격수 이학주가 실점으로 연결되는 실책을 주고받으면서 진땀 승부를 벌였다.

17일 NC전에서는 3-1로 앞선 7회말 박찬호가 다시 한번 포구 실책을 기록했고, 이번에도 실수가 실점으로 연결됐다.

두 경기 모두 1점 차 승리로 끝났지만 KIA는 13경기에서 20개의 실책을 기록하면서, 팀 실책 1위다.

마운드에서는 '제구'가 키워드가 됐다.

지난주 두 차례 등판에 나선 이의리가 '제구'에 고전했다.

이의리는 12일 연속안타로 경기를 시작해 1회부터 2실점을 하면서 3이닝 등판에 그쳤다. 17일에는 모처럼 1회를 삼자범퇴로 넘겼지만 3회말 3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는 등 5개의 볼넷을 남기며 어렵게 5회를 채웠다.

물집 부상으로 캠프 기간 실전이 부족했던 만큼 아직은 100%의 감각은 아니지만 구위는 여전히 위력적이라는 점은 위안거리다.

13일 롯데전 선발로 나섰던 한승혁도 볼넷으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어렵게 경기를 풀어갔다. 제구 약점을 다시 노출한 한승혁은 0.1이닝 3실점으로 고전했고, 쏟아진 비 덕분에 자책점을 지울 수 있었다.

다행히 초반 부침이 있었던 선발진도 지난주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로니 윌리엄스가 공격적이고 집중력 있는 피칭으로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선발승 스타트를 끊었고, 최연소 2000이닝을 장식한 양현종도 위기를 넘고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만들었다.

팔꿈치 부상으로 쉬어갔던 션 놀린도 다시 전력에 가세하면서 선발진에 안정감이 생겼다. 또 복사근 부상으로 캠프 중반 이탈했던 임기영도 지난주 퓨처스리그에서 두 번째 등판을 소화하는 등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해줘야 할' 김선빈과 최형우의 타격 상승세가 반갑다.

공수에서 시즌 출발이 좋지 못했던 김선빈이 지난주 5경기에서 0.389의 타율을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몇 차례 공중으로 날아올라 상대 흐름을 끊는 호수비도 선보였다.

최형우도 0.333의 타율을 기록하며 타선의 폭발력을 더해줬고, 나성범도 17일 마침내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KIA 타선이 움직이기 시작됐다.

앞서 타선의 동반 침체로 수비 부담이 가중됐지만 16일 화력을 폭발시킨 KIA는 수비에서도 여유로운 경기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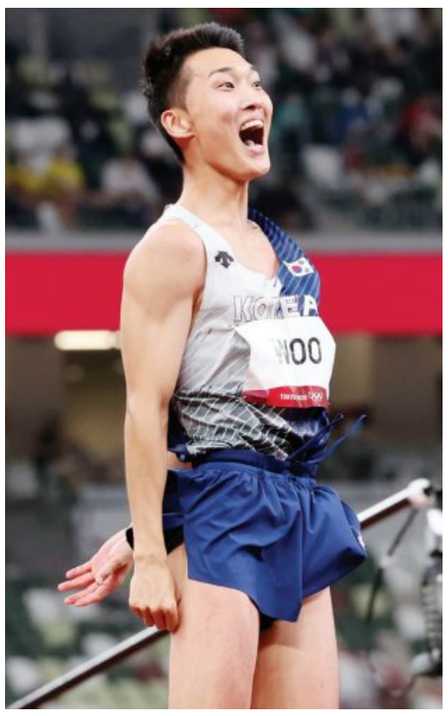
김도영·김석환 등 어린 선수들도 선배들의 상승세 속에 한결 부담을 덜어내고 타석에 서게 되는 등 KIA는 주말 NC전을 통해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

선발진의 안정화 속 타선의 상승세를 더한 KIA가 기복을 줄이고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높이뛰기 우상혁 실외 경기 출전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광주시청 김국영·정혜림 출전


우상혁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챔피언 우상혁(국군체육부대)이 올 시즌 첫 실외 경기를 치른다.

우상혁은 19일부터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남자 높이뛰기 일반부 결선은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우상혁은 지난겨울 '실내 대회'에서 한국 육상의 역사를 바꿨다.

2월 6일 체코에서 2m36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더니, 3월 20일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2m34로 우승했다.

메이저대회인 세계실내육상선수권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한 건 우상혁이 최초다. 우상혁 외에는 메달을 딴 선수도 없다.

실내경기장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둔 우상혁은 이제 실외로 나와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한다.

종별선수권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다.

우상혁은 올 시즌 첫 실외 경기를 국내에서 치러 항저우행 티켓을 확보한 뒤 다시 국외로 떠나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계획이다.

5월 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에서는 무타즈 에사 바심(카타르), 장마르코 탬베리(이탈리아)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다.

바심과 탬베리는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2m37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올림픽에서 우상혁은 2m35로 4위를 했다.

2022년 우상혁은 2m36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르는 등 부쩍 성장했고, 현역 최고 점퍼인 바심, 탬베리와 '빅3' 구도를 이뤘다.

우상혁은 바심, 탬베리와 대결하기 전 종별선수권에서 훈련 성과를 점검한다.

우상혁 외에도 한국 육상을 대표하는 선수 모두 종별선수권에 출전한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광주시청)은 항저우행 티켓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준 기록(10초05) 통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다. 남자 100m 결선을 알리는 총성은 19일 오후 4시 35분에 울린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간판 진민섭(충주시청)은 20일 오후 3시 30분에 결선을 치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육상에 유일한 금메달을 안긴 여자 100m 허들 정혜림(광주시청)도 출전 신청서를 냈다. 여자 100m 허들 결선은 23일 오후 12시 25분에 열린다.

/연합뉴스

토론토 류현진 팔뚝 검진 … 10일짜리 부상자 명단 올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결국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메이저리그(MLB) 공식 사이트인 MLB닷컴은 18일 류현진이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은 전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 등판 이후 왼쪽 팔뚝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MRI 검진을 받은 뒤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현진의 향후 복귀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즌 초반 2차례 등판에서 제구력이 흔들리고 구속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전날 오클랜드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6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5실점으로 무너졌다.

포심패스트볼 구속이 최고 90.2마일(약 145㎞), 평균 88.7마일(약 143㎞)로 눈에 띄게 스피드가 떨어져 우려를 샀다. /연합뉴스